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시부터 보도가능</b>	배포	2016.12.21(수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	<b>담 당 자</b>	김 영 대 사무관 (02-2100-2672)		

## 제 목 : 연합뉴스 12.21일 “연초 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장세 주춤” 제하 기사 관련

### < 보도 내용 >

- 연합뉴스는 12.21일 “연초 도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장세 주춤” 제하의 기사에서
  - “11월 한달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은 33.3%를 기록했다. 성공률은 지난 4월(62.9%) 이후 줄곧 내림세를 타 9월에는 33.3%까지 떨어졌다. 11월에 다시 30%대로 주저앉은 뒤 12월 들어 50%대로 다시 회복된 모습이다.”
  - “월간 기준으로 24개까지 몰렸던 참여기업 수도 10월(9개)과 11월(8개)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. 4월에 33억원대이던 월간 발행금액은 11월들어 4억 8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”고 보도

### < 참고 내용 >

- 크라우드펀딩은 모집(청약) 개시 → 청약 → 펀딩 성공(목표금액 80% 달성) → 청약 기간 종료 → 발행금액 확정 → 증권발행의 절차로 진행되므로, 펀딩 성공 후 증권발행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됨
- 위 기사의 수치는 증권발행이 완료된 시점(발행일)을 기준으로 월별 집계한 자료로써

- 4월 발행금액(33억원)은 제도 초기(1~3월, 24건 성공)에 성공한 기업들이 증권발행 경험 부족으로 증권발행까지 시간이 걸려 4월(8건 성공)에 증권이 집중 발행된 결과로, 시행초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수치이고,

- 11월 발행금액(4.8억원)은 11월 성공기업(13건)이 월말에 집중됨에 따라 실제 발행이 12월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

- \* 증권발행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한 월별 발행금액(월평균 15억원 수준)
  - 1.2억(2월) → 11.9억(3월) → 33.2억(4월) → 11.7억(5월) → 8.2억(6월) → 27.3억(7월) → 17.3억(8월) → 13.4억(9월) → 10.7억(10월) → 4.8억(11월) → 25.8억(12월)

⇒ 실제 크라우드펀딩의 진행이나 성공 상황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목표금액 대비 80%이상 달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

- \* 금융위원회는 실제 펀딩 시도·성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아래 통계수치를 보도자료(11.7, 12.12 등)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음

### <월별 크라우드펀딩 주요 실적(12.20일 기준)>

(단위 : 건수, 억원, 건)

구 분	펀딩 시도		펀딩 성공			펀딩 성공률(%)
	기업수	청약금액	기업수	청약금액	발행(예정)금액	
출시 ~2월	32	15.30	10	11.45	11.35	31.6
3월	23	21.40	14	24.46	22.77	60.1
4월	17	17.39	8	13.52	13.42	47.0
5월	25	17.28	12	18.88	18.14	48.0
6월	25	24.65	14	23.70	22.33	56.0
7월	13	20.10	8	17.74	16.82	61.5
8월	17	19.20	7	17.74	16.38	41.2
9월	16	10.80	7	10.45	9.74	43.8
10월	25	13.37	9	12.96	12.60	36.0
11월	46	21.39	13	18.78	17.28	28.3
12월(~20일)	12	9.97	11	11.40	11.40	-
계	251	190.85	113	181.08	172.23	45.0
(월평균)	(24)	(18)	(10)	(17)	(16)	

① (성공률)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여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집단지성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,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

○ 12.20일 현재 펀딩 성공률은 45% 수준으로, 해외 사례\* 등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님

\* 미국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 20% 수준의 펀딩성공률을 보인바 있음

○ 한편, 10월·11월의 경우 펀딩 참여기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성공률이 30%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

② (참여기업·발행금액) 여름 휴가기간을 전후해서 주춤하였던 펀딩 참여·성공기업 수 및 발행금액은 10월 이후 회복되고 있는 추세

\* 참여기업 : 16건(9월) → 25건(10월) → 46건(11월) → 12건(12.20)

성공기업 : 7건(9월) → 9건(10월) → 13건(11월) → 11건(12.20)

발행(예정)금액 : 10억(9월) → 13억(10월) → 17억(11월) → 11억(12.20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